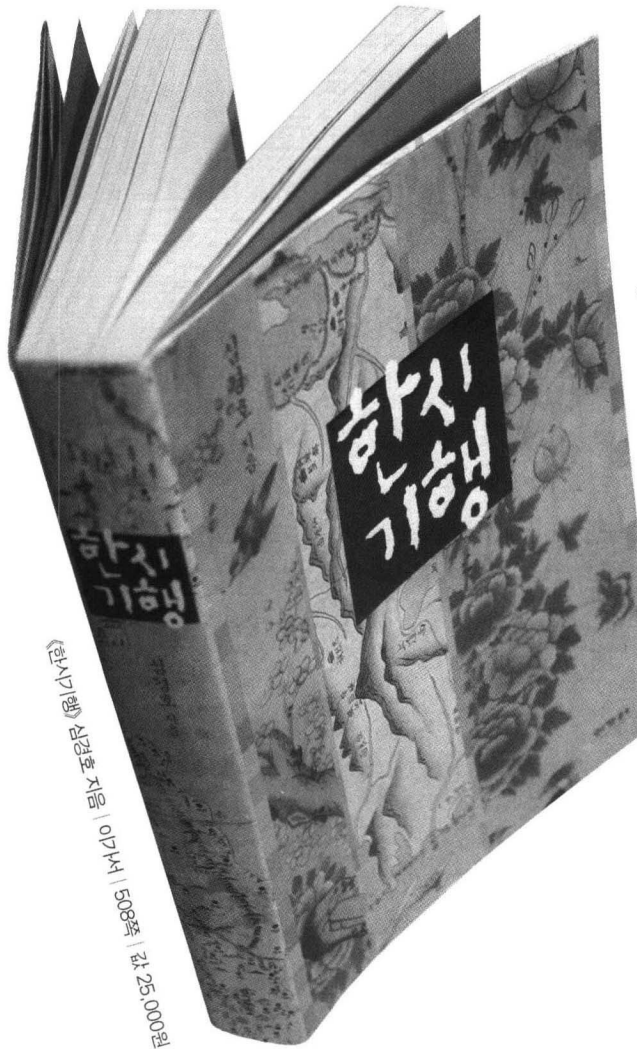


# 시로 읽는 국토 산하의 자연미와 역사미

이종묵



## ●이 글을 쓴 이종묵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로 있다. 저서로 《해동강서시파연구》《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가 있으며, 편역서로 《누워서 노니는 산수》, 역서로 《부유자담론》이 있다.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곁에 두고 늘 찾아보는 책이 15세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誌圖書)》다. 이 책은 지리서로 분류되지만 한 고을의 역사와 풍속, 산천, 물산, 유적, 명승, 인물, 문학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현대 지리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심경호 교수의 《한시기행》은 이러한 전통을 잇되, 한시를 중심에 둔 새로운 역사지리서다.

심경호 교수는 《한시로 엮은 한국사 기행》(범우사, 1994)을 세상에 내놓고, 이듬해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 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대하여>라는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의 산하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민족사의 간단 없는 흐름이 이루어진 생활공간으로서의 역사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 국토 산하의 자연미와 역사미를 규명하는 것이 한국문학 연구의 중요한 사명임을 천명한 것이다.

《한시기행》은 한국문학 연구의 소명을 새로운 형태의 역사지리서에 담아낸 책이다. 한시를 주자료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 역사지리서는 ‘와유(和遊)를 위한 것이다. ‘와유’는 누워서 노닌다는 말로, 책이나 그림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유람하는 것을 이른다. 15세기의 학자 김일손은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에서 “선비가 나서 한 구역의 테두리를 떠나보지 못하고 마는 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이라고 할까? 천하를 두루 구경하여 자기 지식을 넓히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제 나라 산천은 웅당 다 탐방하여야 하련만, 어디 세상일이 그것인들 쉬이 용납하는가?”라고 탄식하였다. 견문을 넓힌다고 하면서 해외 나들이를 하느라 정작 제 나라 산천은 탐방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낮이 붙어지지만, 제 나라 산천을 탐방하지 못한 것은 500년 전 김일손이나 우리나라 매한가지라 위안이 된다. 다만 직접 찾아보지 못할 때에는 책을 통해서라도 탐방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시기행》은 우리 산천의 ‘와유’를 도와준다.

《한시기행》의 서문에서는 이 책이 한 평범한 사람이 길을 떠나 온갖 경험을 한 끝에 새로운 인간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골격의 ‘로드무비’를 실험한 것이라 하고, 종이 위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 하였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발로 하는 ‘답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노니는 ‘와유’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로 하여금 ‘와유’를 통하여 국토 산하의 자연미와 역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시기행》은 ‘와유’를 통하여 조선팔도의 자연미와 역사미를 두루 감상할 수 있을 만큼 정보의 양이 매우 많다. 심경호 교

수 학문의 가장 큰 장점은 박학博學에 있다. 박학한 학자는 조선팔도의 아름다움을 누워서 유람하는 데 그치게 하지 않는다. 《한시기행》은 한시를 통하여 국토산하의 아름다움을 누워서 즐기는 한편,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영욕이 교차된 민족사의 현장을 누워서 유람하게 한다. 이 유람은 일종의 역사기행이다. '조선팔도와 한시', '옛도읍의 역사미', '역동의 자연과 생활', '고대로의 여행'이라는 4부의 타이틀에서, 이 책이 우리 국토의 자연미보다는 역사미에 더욱 힘을 쏟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문학은 사실을 직서하는 역사와 분명 다르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에서 제작된 한시는 허구를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역사를 보필할 수 있다. 두보의 시를 두고 시로 쓴 역사라는 뜻에서 '시사詩史'라 일컫는다. 《한시기행》은 한시로 읽는 역사서라 할 만하다.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시는 '시사'라 할 만한 작품이다. 예를 들면 '성난 바다와 험준한 마천령'이라 부제를 단 함경도 지역을 다룬 대목에서는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를 소재로 한 조선후기의 문인 홍양호洪良浩의 시 "김중서와 윤관의 강토 개척은, 나라에 위엄 있고 군대가 강해하였지만, 공(정문부를 가리킴)은 나라가 위급할 때 빈주먹을 휘둘러, 미친 물결 버티고 선 지주산 같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두만강 인조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중국에게 땅을 거둬 잠식당하였으리"를 들어 회령의 역사를 시에 접목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관리였던 국경인이라는 자가 왕자인 임해군과 순화군을 왜군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기고 항복하였다. 이때 정문부가 의병을 일으켜 국경인과 왜적을 토벌하고 관북지역을 수복하였는데, 이를 기념하여 세운 비가 북관대첩비다. 1905년 일본군에 의하여 약탈되어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다 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바로 그 비석이다. 《한시기행》은 이러한 회령의 역사를 홍양호의 시와 연결하여, 한시를 읽으면서 북방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문학과 역사가 어우러진 《한시기행》은 박학의 산물이다. 공간적으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조선팔도를 포괄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고조선부터 현대사에까지 두루 걸치고 있다. 시만 하더라도 한시뿐만 아니라 민요에서 시조, 가사, 더 나아가 현대사까지 두루 넣었다. 《동국여지승람》이 15세기 이전의 시문만을 다루고 있으며, 《여지도서》나 그 밖의 읍지, 심지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투어 편찬하고 있는 시지市志나 군지郡志에도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물을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

는 한시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시기행》에서 들고 있는 한시는 《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고서를 오랜 기간 동안 섭렵한 박학의 결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심경호 교수의 박학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탁월한 업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개인의 박학은 한계가 있다. 《한시기행》의 박학이 우리 국토의 자연미와 역사미의 대강大綱을 보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보다 더욱 많은 한시가 좀들과 함께 고서 속에 잠들어 있다. 읍지 등의 지리지와 개인의 문집 등 수많은 자료집에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노래한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더욱 방대한 규모의 '한시기행'을 편찬하는 것이 한국문학 연구자의 중요한 소명이다. 55권의 《동국여지승람》이나 55책의 《여지도서》에 필적하는 방대한 규모의 '한시기행'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와 함께 《한시기행》은 또 다른 연구의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시기행》의 기행은 그 규모가 크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후, 비행선을 타고 백두대간을 따라 조선팔도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 타박타박 걸어 다니면서 옛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은 아닌 셈이다. '청학이 사는 지리산'에서는 신라의 최치원崔致遠, 고려의 이인로李仁老, 조선의 조식曹植, 그리고 이성부, 안도현, 범정 등 현대의 문인까지 두루 들어 이들이 지리산과 인연을 맺었음을 밝히고 또 그곳에서 제작한 시를 들고 있다 하여, 이 책을 들고 지리산 가면 이들의 자취를 만나고 또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해서는 《한시기행》이 표방하고 있는 '종이 위의 여행'만으로는 어렵다. '와유'가 아닌 '답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국토에 대한 자연미와 역사미를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집필된 《한시기행》은 역설적으로 국토산하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처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지리서가 있었지만 이와 함께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을 청량산과 연결시킨 《청량산지誌淸涼山志》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이념을 화양동과 함께 실은 《화양동지華陽洞志》가 편찬된 바 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청량산이나 화양동을 답사할 때 퇴계와 우암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미시적인 '한시기행'의 출현을 기대한다. ■